

# 알이엠텍, 에어로겔 사업 본격화

한서대 특허 출자로 연구소기업 등록 ... 기술개발로 저코스트 실현

실리카 에어로겔(Silica Aerogel) 생산기업인 알이엠텍이 연구소기업으로 등록승인을 받았다.

대전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알이엠텍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25호 연구소기업으로 등록승인을 받았다고 11월11일 발표했다.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자본금 20% 이상을 출자해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알이엠텍은 한서대의 <실리카 에어로겔 분말을 함유한 단열성 및 내화성 도배폴 제조방법> 특허를 출자받아 에어로겔 원료생산 및 응용제품개발을 사업화할 예정이다.

실리카 에어로겔은 전체 부피의 98%가 나노 크기의 기포로 이루어져 매우 가볍고 단열 성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강도도 높고 방음 및 충격완화 성능도 뛰어나 꿈의 단열재로 불리고 있다.

알이엠텍 관계자는 “기존 에어로겔은 원재료가 kg당 10만원에 판매되는 등 비싸고 다른 물질과 잘 섞이지 않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기술개발을 통해 단점을 개선해 단열코팅제나 단열도로 등에 활용가능한 저가의 에어로겔을 제조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1/11>